

방법: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1999년부터 2004년 4월까지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의 청구 명세서를 직접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방병원 입원 환자의 성별, 연령별, 주상병별 분포 및 이러한 특성에 따른 입원기간과 총 진료비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건강보험 청구건 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때, 청구건은 다르지만 동일 의료기관, 동일 환자, 동일 주상병, 앞 건의 퇴원일자에 연속된 입원일자를 보이는 청구건의 경우 동일 입원건으로 간주하여 한 건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2003년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한 건강보험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43.3%, 여자 56.7%로 2003년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성별 분포에 비해 여자 환자 및 노인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중 37.6%가 후기 고령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3.5일이었으며, 입원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전체 환자의 21.5%를 차지하였다. 평균 총 진료비는 799,919원, 평균 입원일당 진료비는 32,837원이었다. 상병에 따라 입원기간의 분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계질환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27.9일이었으며, 30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비중이 29.0%로 다른 상병군에 비해 입원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여자 환자의 비율 및 노인 환자의 비율이 더 높고 평균 입원기간도 더 길다. 위 결과를 기존에 건강보험 청구건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던 결과들과 비교하여 보면,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실제의 입원건에 비해 입원기간을 짧게 추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통계상에서도 한방병원에서 30일 이상의 입원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1%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에피소드 기준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건을 그대로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 비해 입원기간과 건당 진료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입원환자의 의료이용양상을 분석하는 경우 에피소드 개념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청구행태를 반영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shpa-6

대북지원에 관한 주요 신문 사설과 칼럼 분석(1993-2005): 보건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s' Editorial and Column on the Aid for North Korea(1993-2005): its implication for health policy

신상진¹⁾, 신영전¹⁾

1)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대북지원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따라서 대북지원에 대한 보도동향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99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대북지원 관련 신문사설과 칼럼에 나타난 보도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계획과 수행에서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방법: 국내 일간지별, 시기별, 지원 분야별 대북지원에 대한 보도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3년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의 사실과 칼럼 366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언론사별 대북지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지원에 대한 반대가 찬성에 비해 많았고, 한겨레와 서울신문은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의 빈도가 동일하였다. 반대의 주된 이유로는 북한정부태도에 대한 불만,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한국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시기별 대북지원의 보도내용은, 김영삼 정부(1993-1997)와 노무현 정부(2003-2005. 6) 시기에는 대북지원에 대한 찬성이 반대에 비해 많았으나, 김대중 정부(1998-2002) 시기에는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4$). 또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은 남북한 정세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식량 지원, 재해지원과 같이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북지원의 경우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으나, 전력, 경제협력과 같이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대가 많았다($p=0.000$). 특히 보건의료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반대의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결론: 대북보건의료지원에 있어서 여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결과는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이며, 지원의 근거로 인도주의적 측면과 함께 실용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지원원칙과 방식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kshpa-7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김현철^{1),2)}, 권순만²⁾

1)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적: 2004년 12월 담배가격 500원 인상 조치는 그동안 실시했던 담배 가격 규제 중 가장 인상폭이 큰 것으로, 이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과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며, 청소년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조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울, 인천, 부천, 광주, 포항과 그 주변의 읍면지역에 있는 15,310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지역 비율, 남 / 여 비율,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 실업계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대상 학교를 선정 하였다.

설문은 보건교사를 통해 각 학교에 배포된 설문지를 청소년이 자기기입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 도구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한 사항, 흡연 관련 특성, 담배가격 인상전후 흡연 양태 변화 등이 포함되었고, 사전에 약 5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약 30명에게 사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여 설문의 완성도를 높였고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 -test를 실시하였으며, 탄력성 추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